

社說

시기적절한 조직개편 해야

포천시는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조직개편을 위한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보는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에 맞는 행정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특성상 무성의하게 설문에 응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조직개편 방향은 정보화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과 정책기획 기능 부서 신설, 지원부서 감축 등을 꼽았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은 공무원들 자신들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책임자 제도를 시행하려고 할 것이다.

총책임자 제도가 조직과 인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인건비 총액만 가지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시법 실시 후 내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운영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지 여부는 두고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 조직개편도 지연되거나 아니면 현재 조직을 일부 개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 포천시 조직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정책기획 기능과 각종 민원서비스 분야다.

여기에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할 역량있는 공직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스스로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친절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같은 원인은 일하는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 직원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예산과 정책분야와 더불어 공공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포천시는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개발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개발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개발이 완료된 대도시나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에 비해 민원이 폭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천시는 정책기획과 민원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포천시가 2월중 개편할 조직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행자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현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수요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면 당분간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인력증원이 능사가 아니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대의 경쟁력이 생긴다.

포천시는 장기적인 비전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포천시 조직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정책기획 기능과 각종 민원서비스 분야다.

新都市 찬성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조흥 國會議員 찬반여부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포천·연천·사진)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포천시민 남녀(남53%, 여성47%) 5천 77명을 대상으로 포천시도시 계획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포천·연천·사진)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포천시민 남녀(남53%, 여성47%) 5천 77명을 대상으로 포천시도시 계획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포천시지역 신도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서 91%가 적극 찬성(반면 9%만이 적극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지역·성별·연령·직업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형태가 자가 일수록 더욱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신도시 확장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포천시민의 55%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교육수준 및 문화부대시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21%), '교육수준 및 문화부대시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19%),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증식 기회가 될 것이다'(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어 교통 기간산업 확충을 찬성 이유로 답변한 반면 여성들은 교육·문화부대시설의 확충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50-60대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교통 기간산업 확충을 선택했거나 젊은 세대 일수록 교육·문화 부대시설의 확충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직업별로는 비숙련직은 지역경제활성화, 학생은 교육·문화 부대시설의 확충에 대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을 했다.

포천 신도시 확장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원주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32%)와 '신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31%)에 가장 많았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한다'(26%), '신도시 개발로 기존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반대 이유에 대한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50대가 '외지인의 부동산 소유로 원주민에게 도움이 없다'를 꼽은 반면 30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문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조사됐다.

직업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제조업과 주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공무원/회사원과 학생들은 '환경파괴', 농·어업자들은 '외지인의 부동산 소유로 원주민에게 도움이 없다'를 꼽았다.

신도시 개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포천 시민의 40%가 '교통망 개발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공장 유치'(26%), '교육시설확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16%), '문화관광 시설 확충'(12%)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교통망 개발 문제', 여성은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20세와 50-60대는 교통망 개발 문제, 30대는 교육문제, 40-50대는 산업기반 확충, 10대는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겨울철 화재예방 만전당부

이보형 소방서장, 양문공단 영중119센터 방문

이보형 포천소방서장은 지난 6일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과 함께 관내 화재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양문염색공단과 영중119안전센터 신축부지를 방문했다.

양문염색공단은 영중면 양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염색 및 나염 40여개 업체와 80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공단이다.

양문공단을 방문한 이보형 소방서장과 류소현 본부장은 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들에게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소방력 지원 및 자율적 안전관리,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19신고요령 교육 등 화기 취급주의를 당부했다.

정명호 조합이사장은 공장화재 취약요인 등 제반 소방시설 등을 답사한 후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보형 소방서장은 "양문공단은 물론 영중119안전센터와 인근 영북119안전센터와의 거리 및 소방력 확보의 적절성 등 화재예방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백두산호랑이 박제로 재생

국내최초 표본박제로 학술연구에 활용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에서는 지난 3월 29일 죽은 백두산호랑이(암컷)를 박제 표본해 지난 12월 15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일반인에게 전시를 한 후, 학술연구 및 전시용으로 영원히 보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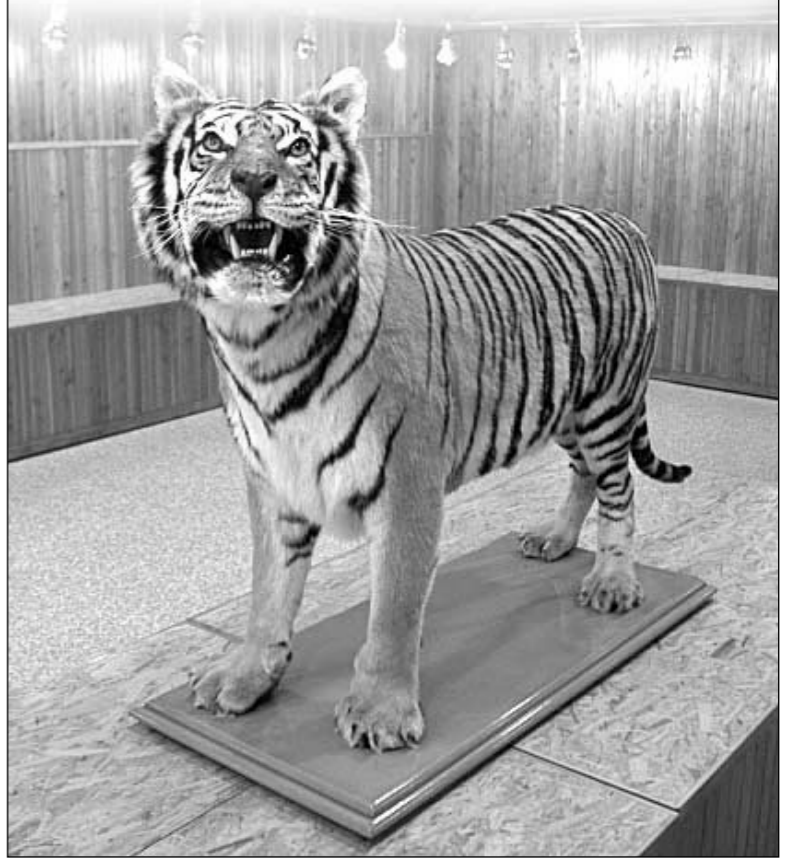
특히 이번엔 제작된 표본 박제 중 골격 표본은 국내 최초의 백두산호랑이 골격 표본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관람 뿐만 아니라 백두산호랑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본 박제된 백두산 호랑이

표본은 체장 249.1cm(미장포함), 체고 97.5cm, 체중 160.0kg(생전) 등이며 현재 국내 호랑이 골격 표본은 백강호랑이를 이용해 표본이다.

호기 표본은 동물 번식을 위해 동물원을 비 개방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백두산호랑이를 보고 싶어 하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원 비 개방은 11월 16일부터 다음달 5월 14일까지이며 전시된 동물표본은 백두산호랑이, 반달가슴곰 등 15종이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 140억원

경기도의회 이주석 의원 예결위 활동



경기도의회 제217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위원회로 활동한 이주석 의원(포천제2선거구·사진)은 포천시 발전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경기도예산은 11조3천65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7%증가한 8조 6천19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개의 편성 및 5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총예산 규모는 2조7천46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

산액 대비 54.1%가 증가했다.

이 의원은 밝힌 경기도 2007년도 예산중 포천시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개발 ▶ 광릉숲우회도로 개설비 140억원(국비) ▶ 하연-일동간 도로개설비 106억원(국도비) ▶ 광암-마산간 도로개설비 40억원(도비) ▶ 신림-삼곡간 도로개설비 20억원(도비) ▶ 하송우리-마산간 도로개설비 20억원(도비) ▶ 광암-신북간 도로개설비 20억원(도비) ▶ 도시환경 ▶ 오지종합개발 자차리 공동창고 1동 1억4천600만원(도비) 1억200만원, 시비 4천400만원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24억9천187만5천원(국도시비) ▶ 절경지역지원사업비 38억5천700만원(국도시비) ▶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1억5천만 원(도시비)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사업 1억원(도비) ▶ 문화복지 ▶ 소읍읍도서관 건립비 36억원(국비) 10억원, 도비 26억원 ▶ 포천직주리 부부승용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도비) 1억4천만원, 도비 3천만원 ▶ 포천

운역서원 서재터 발굴조사 3천만원(도시비) ▶ 포천신문 생활체육공민 조성비 7억5천만원 ▶ 환경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비(일동 청계산) 2천만원(도비) ▶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비 84억원(국도시비) ▶ 하수처리장설치비 114억4천500만원(국도시비) ▶ 하수관거정비사업 102억원(국시비) ▶ 분뇨처리시설설치 및정비사업 3억9천600만원(국도시비) ▶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 2억2천800만원(국도시비) ▶ 자연연못정화사업 29억3천450만원(국도시비) ▶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1억400만원(국도시비) ▶ 축산폐수수집운반비 1억500만원(도시비) ▶ 노후하수관개량사업 3억6천900만원(도시비) ▶ 지역개발 ▶ 수입천개수사업 2억7천500만원(도비) ▶ 추동천개수사업 10억원(도비) ▶ 포천천 개수사업 15억원(도비) ▶ 모지사시책추진보전금 ▶ 이기팔-고모간 도로 10억원(지사약속) ▶ 일동수입교가설공사 10억원(지사약속)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www.ipcs21.com.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paper (포천신문) with the headline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 and a list of publication dates.